

“최고 명성 잇는다”...해남 고구마연구센터 본격 가동

삼산면 평할리에 3만㎡ 규모...연구시설과 노지 시험포 등 갖춰
신품종 육성·생산기술 연구·표준 재배 기술 확립 전진기지 역할

지리적표시 제42호인 해남 고구마가 명품 브랜드로 재도약한다.
해남군은 해남고구마의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을 연구·보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고구마연구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산면 평할리에 3만㎡ 규모의 고구마연구센터는 신품종 육성과 병해충 진단, 저장·선별 기술, 가공 상품 연구 등 고구마 산업의 전 단계를 총괄하는 거점시설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연구시설과 노지 시험포 등을 갖추고 고구마 산업의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담당하게 된다. 외래종 고구마를 대체할 해남 특유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기상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처하는 안정적인 생산기술 연구, 가공 상품의 연구개발 등이 이뤄진다.
특히 해남군은 고구마연구센터를 거점으로 신품종 개발부터 표준 재배 기술 확립, 가공산업 육성, 유통 일원화까지 고구마 산업의 전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체계적인 고구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이다. 먼저 식용과 가공용을 아우르는 고품질 신품종을 직접 개8 발하고, 다수확·내재해성·내병충성 품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기계와 노지 스마트팜을 도입해 정밀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하는 실증연구에도 착수했다.
또 맞춤형 방제와 표준재배 매뉴얼을 마련해 토양 관리, 재식거리, 병해충 방제, 수확 시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부터 수확·저장·선별·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해 균일한 품질의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공 산업화와 유통혁신도 본격화된다. 고구마 순과 및 등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를 확

? 해남 고구마
해남은 600여 농가, 2000여ha 재배면적에서 연간 3만 4000여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남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로,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으며, 지리적 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대하는 등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종의 가공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중소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 선별·출하회를 조직화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회사형 유통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고구마가 오랜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최고 품질의 고구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농가소득 증가는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이 해남고구마의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을 연구·보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고구마연구센터를 구축했다. 고구마 육종 시범포. (해남군 제공)

완도군 가족센터, 다양한 세대·가족 프로그램 운영 활발

6월 개관 맞춤형 가족 복지 공간
청소년·다문화 가족 다양한 행사

완도군 가족센터가 다양한 세대와 가족 유형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개관한 완도군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가족 복지 공간으로 ▲다목적 소풍 공간, 커뮤니티실 ▲공동 욕아 나눔터와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실 및 한국어 교실 ▲상담실 ▲교육실, 요리 교실, 동아리방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결혼이민자와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 특산물 ‘전복·돔 활용 수제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음식이라는 친근한 매개체로 엮어 호응을 얻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욕아 나눔터’는 아이를 함께 돌보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공간이 됐다.



완도군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취미 교실.

아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정보 등을 공유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설계 지원, 자녀 코칭,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신체 놀이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완도군 가족센터는 앞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강

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기반 구축 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가족센터는 지역민 모두가 가족처럼 어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면서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가족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건강·환경·안전 일석삼조 쓰담 달리기

위커블삼향 걷기동아리와 집중호우 대비 수로 정화활동도



쓰담 달리기 활동을 진행한 위커블삼향 걷기 동아리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최근 위커블삼향 걷기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오통지구 일대에서 쓰담 달리기와 폭우 대비 수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실천과 더불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주택가와 공원 주변, 인도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낙엽을 수거했으며, 배수로 내 퇴적물과 이물질을 제거해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걷기운동과 환경정화, 재난예방을 동시에 실천하는 건강·환경·안전 융합형 봉사로 진행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위커블삼향 동아리 한 회원은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키는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형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의료장은 “걷기동아리의 자발적 참여로 건강과 환경, 안전을 함께 지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25만원 지원

5~7월 사용 요금 실비 정산 지급

목포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43개 착한가격업소이며,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업소당 최대 25만 원 한도로 실비 정산해 지급할 계획

이다.
다만 상반기에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받은 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는 동종업계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등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 업소에는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지정서와 인증 현판, 시청 누리집·SNS 홍보 기

회, 운영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에 업체당 50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와 물티슈 등의 운영 물품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해 신규 지정 업소에는 40만원 상당의 운영 물품과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민원인 3300명에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도 향상 다양한 시책 추진

진도군이 지난 1년 동안 계약, 보조금, 재정, 세정, 인허가 분야 업무와 관련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약 3300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에는 민원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진도군의 의지를 담았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

을 달성한 진도군은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 보고회 ▲청렴 캠페인 ▲1부서 1청렴 실천 활동 ▲부패방지 제도개선 이행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서한문 발송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체감하는 청렴한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했더니 쌀에 멜론까지

영암군, 14~31일 이벤트
학이머문쌀 등 답례품 증정

영암군이 14일부터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특별 이벤트 ‘영암사랑기부했더니 쌀에, 멜론까지’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자에게 영암의 우수 농산물을 맛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영암쌀인 달마지쌀·학이머문쌀 10kg을 답례품으로 주문하면 기부 기간에 상관없이 1kg을 추가 증량해

준다.
특히 이벤트 기간 내 기부자 중 50명을 따로 추첨해 멜론을 증정한다.
달마지쌀과 학이머문쌀은 청정한 토양과 기후에서 재배돼 맛과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는 영암 대표 쌀이다.
영암 멜론은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여름철 인기 농산물로 지역 안팎에서 인기 있는 농특산물로 꼽힌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기부자에게 영암의 특별한 맛과 정성을 전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장세일 영광군수가 지난 11일 영광교통을 찾아 새로 도입한 전기저상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영광군수,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점검

35억 투입 10대 도입 본격 운행

영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전기저상버스 10대 도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됐다. 도입된 차량은 중형 6대, 대형 4대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과 도심 대기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기버스는 소음·진동이 적어 이용객 만족도가 높고 경유 대비 연료비가 적게 들어 농어

촌버스사업자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장세일 군수는 지난 11일 전기저상버스 도입 사업 점검을 위해 도입된 전기버스를 둘러보고, 영광교통 관계자와 교통약자 대상 안전과 친절 운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기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교통 분야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다”라며 “내년까지 8대를 추가 도입해 전기저상버스 전면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